

코로나 충격에 실업급여 역대 최대

4월 지급액 120억원으로 한 달 만에 최대 기록 경신
신규 신청자 107% ↑ … “지급 기간 연장 등 영향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도민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4월 실업 급여 지급액이 120억원에 달해 올해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20억원 (8248명)으로 작년 동월 (77억원·5351명)보다 43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 3월 세운 역대 최대 기록 (103억원)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지난달 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는 2064명으로, 작년 동월 (996명)보다 1068명 (107.2%) 증가했다. 이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 등과 함께 실업급여에 포함되는데 금액으로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0억원, 2월 80억원, 3월 103억원이다. 작년 동월 대비 각각 8.9%, 18.9%, 37.2% 증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신규 신청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장과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로그자

등교 연기돼도 학사 일정 그대로… 중간·기말고사 보고 평가비율 조정

운동부 학생 지원도 확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등교 개학’이 20일로 일주일 연기됐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계획된 학사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하는 ‘순차적 등교 개학 계획’을 ▷20일 고3 ▷27일 고2·중3·초1·2·유치원 ▷6월 3일 고1·중2·초3~4 ▷6월 8일 중1·초5~6 등으로 각각 일주일씩 연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등교 개학이 일주일 미뤄지더라도 지필평가 (중가·기말고사) 등 예정된 학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들이 개학 직후 시험을 치러야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간고사 일정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학사일정’에 따르면 도내 중학교 (45개교) 중간고사 일정은 이달 25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치러지며, 고등학교 (30개교)의 경우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2일 사이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수행·지필평가 내신 반영 비율을 지필평가 위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결정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1195명에 이르는 ‘운동부 학생’에 대해서는 등교 개학 이후 ▷접촉종

목 (레슬링·태권도·복싱 등)은 개인 훈련 ▷비접촉종목 (사격·테니스 등)은 정상 훈련 ▷단체종목 (축구 등)은 개인 기술 습득 위주로 일정이 진행된다. 또한 상반기 개최되는 각종 대회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학생 1명이 타지역 대회에 참가하면 30만원씩 지급하던 지원금 규모도 예산 상황에 맞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 등교 개학은 20일부터 가능하게 하되, 학교 사정에 맞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4일로 예정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1일로 연기됐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일주일간 등교수업을 위한 특별소독, 교실책상 재배치, 1인 2매 분량 마스크 비축 등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또 학교 교장단을 통한 의견수렴에 나서 예정된 등교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국내산 경주마 경매 12일 제주시 조천읍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첫 국내산 경주마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렌터카 사고 가장 많은 ‘20대 운전자’

경찰청, 최근 3년 집계 결과
20대 사고 43%로 절반 가량
짧은 운전경험 등 원인 작용

제주도내 렌터카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은 20대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2017~2019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1641건이다. 이 기간 도내 전체 교통사고의 13%에 달한다.

렌터카 사고 중 10~20대 운전자 사고는 45% (741건)로 집계돼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43% (703건)로 대부분이고, 10대가 2% (38건)다. 또 30대 23% (373건), 40대 15% (250건), 50대 12% (191건), 60대 이상이 5% (85건)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렌터카 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 운전자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 521건 중 43% (222건)를 차지했고, 2018년 513건 중 45% (232건), 2019년에는 607건 중 47% (287건)에 달했다.

20대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

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짧은 운전 경험과 안전수칙 불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같은 기간 렌터카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안전운전 불이행이 46% (755건)를 차지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10% (171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9% (155건)였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자 중 젊은층은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만큼 위험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함께해요”

학생 봉사활동 시간 단축

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점검

경찰이 초등학교 개학에 대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경찰·지자체·도로교통공단·학교·학부모로 편성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8주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91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수점검은 등교를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하나로 계획됐다.

합동점검단은 노후화돼 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게 된다. 학교·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기반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민식이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점검한다.

또 5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통학버스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특별보호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제주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개별 봉사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바뀐 계획을 보면 봉사활동 시간은 연 20시간 만점 (6점)에서 12시간 만점으로 8시간 축소된다. 이어 ▷19~18시간 (5.5점)→11시간 ▷17~16시간 (5점)→10시간 ▷15~14 (4.5점)→9시간 ▷13~12시간 (4점)→8시간 ▷11~10시간 (3.5점)→7시간 등이다.

송은범기자

농약없이 감자·당근·양파재배 성공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하하농법이 최선이다

썰파고와 V패스로 농약없이 재배한 농가가 있어
동네 농업인들 사이 소문이 자자하다고

썰파고	·나노 유황으로 만든 320여가지 농약성분이 없으며 살균·살충 효과가 있다
V패스	·양자에너지와 희토류 생분해 복합제제로 세균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의 회복과 면역력 증강으로 식물 우성세포의 복원을 촉진시킨다
당근 생산농가	구좌읍 세송로 김 정 애 (010-5036-1235)
양파 생산농가	대정읍 신도리 문 형 원 (010-2698-2476)
감자 생산농가	대정읍 상모리 박 성 국 (010-3030-0907)

브로콜리, 양배추, 무우, 마늘 등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 기대가 됩니다 (초기 살충제 혼용)
농가에서는 농약값이 절반으로 줄어 하하 웃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

진정한 제주농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잡초의 경감

N2O
오래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높은 저장성

페르카®

토양 공황이성
질병의 방제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이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열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역해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면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